



**[산업]**  
LG트롬 세탁기 씽규  
의류재질 따라 알아서 세탁  
“빨래할 맛 나네”  
06



Life

**[기획]**  
박찬중 코베카 신임 회장  
“한국-베트남 교류 발전  
경제·문화 지방까지 확산”  
L4



# 코오롱-협력사 ‘상생합심’... 소외 어린이의 ‘드림 파트너’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경영이념은 산업인의 사명에 투철하고, 능률과 창의로써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는 보람찬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 생활의 풍요와 인류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를 위해 환경 보전, 문화, 스포츠, 사회복지, 상생경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 ◆신입사원 봉사활동으로 사회생활 시작

코오롱은 2012년부터 매년 모든 신입사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드림팩’을 제작하고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그룹에서의 첫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전통을 9년째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 1월 코오롱그룹 신입사원들은 경기도 용인 코오롱인재개발센터에서 봉사활동으로 첫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코오롱사회봉사단과 국제구호 NGO인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이 활동은 신학기 용품 키트를 제작해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기부하는 ‘드림팩기부천사 캠페인’이다.

코오롱은 2012년에 코오롱사회봉사단을 창단해 ‘꿈을 향한 디딤돌, Dream Partners’를 슬로건으로 ‘어린이들의 꿈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코오롱사회봉사단은 소외 청소년들의 꿈을 찾고 키워주는 ‘헬로 드림(Hello Dream)’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연누적인원 8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 ◆‘상생합심’...상생경영 보폭 넓히기

코오롱그룹은 파트너 회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계열사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우리은행과 상생펀드 조성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벌 3개사가 상생예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우리은행이 일정 금액을 더해 조성했다. 이로써 코오롱그룹 협력사들은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7년 ‘항구적 무분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동행’과 2016년 노사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돼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상생동체’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지난해 1월에는 노동조합 및 사내협력업체와 상생의 의미를 담은 ‘상생합심 선언식’을 열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의 남성 캐주얼 브랜드 시리즈는 소외된 문화예술 산업을 후원하는 ‘웜하트 캠페인’을 지난 2011년부터 하고 있다. 국내외 예술가들과 협업한 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 일부를 예술 산업에 기부하는 등 브랜드와 문화



- 1 과천 관문체육공원에서 열린 2016 코오롱그룹 임직원 단합 행사에서 직원들이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부할 개인 사물함 800개를 제작했다.
- 2 코오롱은 2012년부터 매년 모든 신입사원이 봉사활동으로 첫 사회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3 지난달 25일 코오롱그룹 임직원들이 지난해 자발적으로 기증한 헌혈증 500매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김승일 코오롱CSR사무국 부사장(왼쪽)이 헌혈증을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4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1월 노동조합과 사내협력업체 등 3자 간 상생하자는 뜻의 ‘상생합심’을 선언했다.
- 5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가 지난 2018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친환경 전시회 ‘에티컬 패션쇼’에 참가했다. /코오롱그룹

**봉사활동으로 신입사원 첫 활동 시작**  
저소득가정 아동 위한 학용품키트 제작  
어린이 꿈 찾고 키워주는 디딤돌 역할

**우리은행과 상생펀드로 중소기업 지원**  
건강한 노사관계 위해 ‘상생합심’ 선언

**공원·명소 정화활동 등 환경보전 협력**  
재고 활용한 ‘업사이클 스윗셔츠’ 선배

예술계의 ‘상생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2002년부터 협력사 협의회인 보람회를 10년 넘게 운영해오며 협력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비율을 높이고, 공동기술 개발협약을 맺어 협력사의 품질 개선 및 기술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

또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 회계, 위기관리 기법 등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1억5000만 원 규모의 복지기금을 운용, 형편이 어려운 협력사 임직원을 돕고 있다.

#### ◆지속가능한 패션을 입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자연과 함께 꿈과 사랑을 이라는 모토로 본사 및 각 사업장 가까이 위치한 공원 및 명소에 대한 정화 활동을 연 2회에 걸쳐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2004년부터 도시생태 공원 조성, 서울의 녹지 숲 복원을 위해 폭넓게 일대 조성된 서울숲 35만 평 중 일부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숲’

로 조성했다. 재단의 환경 보전 행사와 기후변화센터 후원 등의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에도 협력 중이다.

이외에 각 사업장에서 공장에 인접해 있는 자매결연 마을 청소 및 꽃길 조성, 그리고 매주 사업장 주변을 청소, 지역 자연학습원 지원 등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코오롱인더스트리FnC는 ‘친환경 패션’ 등을 내세워 환경문제에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패션의 블루오션을 열어가고 있다.

2012년 론칭한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의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RE:CODE)는 3년 차 재고를 재료로 다시 활용하면서 자원 순환 개념을 도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8개 브랜드가 모여 스윗셔츠 시즌 2인 ‘업사이클링 스윗셔츠’를 출시하고 캠페인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했다. 캠프리지엠 버스, 에피그램, 에스로우, 핸리코튼, 코오롱스포츠, 레코드, 커스텀벨로우 8개 브랜드가 참여해 환경을 위한 가치 있는 일, ‘우리의 24시간(Our 24Hours)’을 테마로 ‘업사이클링 스윗셔츠’ 8종을 선보였다.